

■ 권은희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권 은 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구 북구 갑 권은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다한 것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전체의 의정활동을 꼼꼼하게 살피고 국회의 활발한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헌정대상 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와 지역을 바쁘게 오고가며 다짐했던 여러 결심들과 주민들과 나누었던 많은 약속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큰 대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성원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대구 북구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큰 기쁨 앞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남은 19대 임기동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2년 연속'국회헌정대상'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2년차 초선 국회의원로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제1야당의 수석대변인에 이어 당대표비서실장이라는 커다란 역할을 맡아 참으로 많은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고, 섬김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지만 초선의 고군분투를 높게 평가해주신 23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이사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모아주신 군산지역민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밑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국회와 자유민주주의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써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저 역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준 의원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기준입니다.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무척 뜻 깊습니다.

전국 270개 시민사회 연대체로 구성되어 16년째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이끌어낸 법률소비자연맹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큰 역할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를 표명하며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고, 저 또한 그 일원으로서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진정성 있고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하기위해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대출 상한 금리를 인하하는「이자제한법」,「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오피스텔 입주자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소득세법 개정안」등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카드사 대량 개인정보유출 사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정홍원 총리와 현 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발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되도록 적게나마 기여했다고 여겨진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훈 의원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 출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국회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해주

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 매진해 온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광을 국민 여러분과 대구 서구 주민 여러분께 돌립니다.

이번 수상으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만큼,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합과 결속을 위한 민생의 대변인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며, '소통과 화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통일과 번영'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실현하는데 미력하나마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함께 수상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이런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 상 훈

■ 김상희 의원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소사)

작년에 이어 '국회헌정대상'을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두 달이 넘도록 실종자 모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19대 국회 2차년도에는 '안녕들하십니까?'가 사회적 화두였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보낸 따끔한 시선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서민과 민생을 챙기고,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를 구현하며,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더 나빠지는 살림살이, 아무리 일을 해도 소득격차만 커지고, 태어날 때부터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현장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좌절감마저 듭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앞에서 국가시스템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년, 정부와 여당의 불통으로 국회 의정활동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일본대사관 신축 특혜문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과의 부적절한 운영, 사립대 징계 임원의 복귀 등 부당한 관행을 지적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안들을 발의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찜통교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료 인하개선 방안을 관철할 수 있었고, 친일독재 미화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검정 논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19대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는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주류화 조치 등을 반영하여 20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였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모든 국회 회의에 참여하여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 하겠다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록 의원

국회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영록

제19대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서 선정해 주신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쉽고도 어려운 일이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초심을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오늘 영광스런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 지역구민에 대한 봉사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인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농수산지역으로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이 잘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수산정책은 성공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선사, 이와 결탁한 이익집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당국,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마저 팽개친 청와대 등 어느것 하나 정상적이지 못한 결과를 사고발생이후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입법부의 책임도 당연히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념이나 정파를 떠나 대다수 국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확충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며, 국회의원의 무한책임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인 입법활동, 정부정책의 분석과 법안표결을 위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당연히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매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며, 오늘과 같은 시상식을 통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더 없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료 의원에게 격려를 보내고 수상한 의원님들께 축하를 보냅니다.

더불어 오늘 행사를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실한 의정활동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의 눈처럼 항상 국회를 감시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재원 의원

‘국회헌정대상’ 선정 감사인사

부족한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2,700여 모니터 요원과 평가위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의정감시 전문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국회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본분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함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김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재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서귀포시 출신 국회의원 김재윤 입니다.

제19대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서 선정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대 국회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 되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17대부터 지난 10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쉽 없이 달려오는 동안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제안하고 국정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

또한 법률안 투표 및 발의, 상임위와 본회의에 출석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국회의원으로 원칙을 지키고 기본을 지키는 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주신 상은 앞은 늘 초심을 유지하며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상식을 주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시상식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및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듯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느낍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제19대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과 의정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국회 안팎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지난 2년 동안 과연 국민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를 잘 헤아려 드렸는지 다시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갖으며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평가를 국민이 주시는 회초리라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73일째입니다. 아직까지 실종되신 분들을 모두 찾지 못하고 진상규명도 진척이 더딘 상황에 유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윤추구와 생명경시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다시 되돌아보고 재정비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정치를 통해 하나둘씩 바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단 안전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19대 국회 전반기 동안 우리사회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갑을관계와 골목상권 소상

공인들의 숨통을 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역 확장, 여성·인권·노동과 같은 사회·경제 분야의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비리로 얼룩진 원자력발전과 방사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2013년 국정감사에서 현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점들을 꼬집는 것은 물론,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교류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발의를 통하여 우리사회 내·외부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남은 2년 동안에도 휘청이고 있는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뜻을 최우선과제로 삼으며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주변의 소외계층과 약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웃음 지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날카롭고 냉철한 눈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신뢰받는 국회,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본의원이 앞장설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한표 의원

국회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며 전통시장·나들가게·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지적하고 수입가격 인하를 통해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저소득층이 혹한과 찜통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에너지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으며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에는 산업계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불균형, 즉 정부지원제도 미비, 인력부족, 규

제 등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3개 분야로 나눠 정밀분석 및 종합평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국내 유일의 법률전문 NGO이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거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회헌정대상'의 수상을 계기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7
국회의원 김한표

■ 김현숙 의원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국회와 정치, 그리고 법치주의 제도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온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회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삶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지만, 특히 '기초연금법'의 통과에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얻은 중요한 성과로 기억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노인빈곤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자, 국민연금과 함께 은퇴 이후의 국민생활안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여가위의 숙원사업이었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이 자리잡은 사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시아 정치인 네트워크' 제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공원 조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동북아시아 역사를 바로잡는 동시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와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을 겪으며, 정치권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반성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기본과 원칙을 가볍게 여겨왔던 단일한 의식과 관습이 동시에 노출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 역시 그동안 입법 활동에 충실하였는지, 정부에 대한 감시와 예산 편성 등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엄중하게 되우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의 새로운 근간이 될 맞춤형복지의 실현을 비롯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제도와 보건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식물국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정치권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올바른 평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7

국회의원 김현숙

■ 류성걸 의원

「국회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구동구갑 출신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2014년에도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9대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지난 2년은 잠시도 쉴 틈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국회 일정, 2년간의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활동, 두 차례의 국정감사와 2년 연속 계속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활동, 입법 활동까지 최선을 다해 온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과 끊이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고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케 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고, 그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선정된 국회헌정대상 수상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고민하고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제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구 동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 저를 가장 가까이

서 도와주고 있는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의 영광인 국회헌정대상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성실한 의원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회의원 류성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7

대구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

■ 류지영 의원

제19대국회 2차년도 법률연맹의 국회헌정대상 수상소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입니다.

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영광에 이어, 제19대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없지 않을 터인데,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따뜻한 격려라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이 2천여 명의 유권자들과 함께 만들어주신 것으로, 국민들께서 직접 평가해주신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위원이자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국정감사 및 여러 대내·외 활동을 통해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에게 위해를 미치는 사항이 없는지 날날이 파헤치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로서 더 좋은 보육환경조성과 교사처우개선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와 식품전반에서 대형병원의 관례적 부당청구, 방사선 의료기기 검사의 가격경쟁과 부실화, 주류용수(지하수) 발암물질 함유여부 등을 살피고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관리감독 약속을 받아낸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터득한 국민들의 고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러분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책임과 열정을 보태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전문가는 물론 어머니의 마음으로 건강한 양육환경을 위해 유아보육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진정한 평등을 이뤄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환경을 제대로 진단하고, 단순히 숫자 늘리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이루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통한 책임정치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먼저 앞장

서야 하는 현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대표로서 쉽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법률소비자연맹과 김대인 총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함께 수상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내외귀빈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주 의원

제19대 국회 2차년도『국회헌정대상』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민 병 주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제19대 국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의 성과로『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국회헌정대상』은 지난 16년간 꾸준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정밀조사와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번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은 더더욱 기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슴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반기 국회에서도 더욱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늘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으로 지역 구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의 감시자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모니터링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해 항상 애 써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국회헌정대상』수상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 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인숙 의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국회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과 언론기사 등을 간간하게 모니터 하시는 법률소비자연맹 모니터단 여러분과 연맹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수상의 영광을 국민 여러분과 송파구 주민 여러분께 돌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여간 올바른 정책개선 요청과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점으로 조사대상 36개국 가운데 25위이며, 이는 평균점수 6.6에도 못 미치는 점수라고 합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이 심각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지수는 최하위라고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아주 낮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수치들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상은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도덕성이 우수한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

■ 백재현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갑 백재현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작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부족한 저에게 항상 큰 성원과 믿음을 보여주시는 광명시민들과 함께 이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법안 발의 현황,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 현황, 국정감사 성적 등 13개 분야로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평가하여 주어지는 상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재선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나아진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더욱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안전행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그리고 정치개혁특위 등 5개 위원회에서 활동하여 19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외형적인 상임위 숫자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내용까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국회 헌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19대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제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최우선으로 힘쓰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소중한 격려와 신뢰를 전달하기 위해 수고하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재권 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입니다.

23년 전통을 가진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선정한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에 수상자가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국회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김대인 상임공동대표님을 비롯해 2차년도 의정활동의 현장을 지키고 꼼꼼히 평가해 주신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19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에서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의 발의,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올바른 한미동맹의 방향을 제시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개선 방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의 가치창출을 통한 주권실현(실효적 지배) 방안, 프라이카우프를 통한 정치범·국군포로·납북자의 국내 송환 문제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강동구민 여러분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구민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어 다양한 외교·통일 현안과 문제점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수상식을 준비해 주신 주최 측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7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심 재 권

■ 안규백 의원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의원 소감문

보다 나은 세상,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손자 구지편에 '동주공제'(同舟共濟)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는 상생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세상에 상생의 방주(方舟)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안전과 행복이 자리잡도록 경주한 노력에 대해 이처럼 시민과 사회 단체가 좋은 평가를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정한 평가와 활동 덕분에 국회와 국민 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이 모두 어우러지는 '상생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생의 방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국회, 그리고 국가가 모두 상생하는 '평형수'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잡고, 항상 初心의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회의원 안 규 백

■ 오영식 의원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오영식입니다. 작년에 이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시상하는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지역구 주민 여러분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사안일과 무능력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가야 할 방향을 아프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피아', 낙하산 인사의 폐단과 소통을 모르는 정부, 여당의 실책을 교훈 삼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절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호헌장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개조의 총책임자인 총리를 인선하는 일에서부터 빠격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총리후보가 되었다가 낙마했고, 식민사관과 친일파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역사인식을 가진 언론인을 총리후보로 지명했다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는 불통과 오만, 인사실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음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19대 후반기의 국회가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고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초석을 놓겠습니다. 저 오영식도 무의미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정 그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여러분께는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2014년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여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국민 누구나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저 오영식은 이번 국회 헌정대상의 수상이 지금까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과분한 사랑을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제세 의원

‘국회헌정대상’수상 소감문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흥덕구 갑 오제세 의원입니다.

19대 국회 전반기를 마치며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국회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도 국민의 대표로써의 책무를 더욱 열심히 하라는 큰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19대 국회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임무는 바로 복지라는 점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고, 국민통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또한 이를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 노인빈곤 문제 해소, 폭증하는 의료비 대책,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개선방안, 무상보육 정착, 기초노령연금인상, 장애인연금 현실화, 복지인력 처우개선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건복지위원장 재임 중 우리나라 복지를 크게 확대시킨 4가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상보육법안,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 각계에서 복지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온 밑바탕과 함께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반기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 대한민국 경제전반과 재정,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가 재정의 중점적인 지원이 국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자와 재벌만이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재정·조세 정책이 국민들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 생활 보장으로 이어진다면, 청년이 일자리를 갖고, 누구나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누구나 돈 걱정없이 치료받고, 골목상권에는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도 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윤근 의원

법률 소비자 연맹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우윤근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우윤근입니다.

녹음방초(綠陰芳草)의 계절 여름입니다. 푸르게 우거진 나무는 여름의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의 풍성한 나무와 같은 시민들의 ‘격려와 신뢰’를 전달하는 자리를 준비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국회헌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제19대 국회 전반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후반기에는 갈등과 묵은 것을 버리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것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헌정대상이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소통하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실을 반영한 민생정책과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새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광양·구례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 유대운 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유 대 운 (서울 강북을·안전행정위원회)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 잘 하라는 채찍과 격려의 상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17개 시도를 관할하는 위원회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304명의 생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되어 너무 죄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민과 지역 주민들께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구의회와 서울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지켜왔던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국회의원으로서는 본회의, 상임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2년 연속 본회의와 상임위에 100% 출석했습니다. 특히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에 대한 부분은 마치 개근상처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이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소위원회 출석률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남다른 칭찬과 격려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하느라 고생하셨을 법률연맹 지도부 및 모니터링단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데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민과 서울 강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며,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승우 의원

정치인의 소명의식

국회의원 유승우 (경기 이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 유승우의원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지난 '201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어 제 19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초선의원으로서 새 정치구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함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한 것이 해마다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의 문을 열며 하나같이 입을 맞춰 다짐했던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정치적 이슈에 가려진 채 국회조차 외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각오로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야 말로 정치인의 소명의식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발로 뛰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참 일꾼, 더 나아가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고자 더 연구하고 더 노력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유승희 의원

【 140627 유승희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부족한 저를 국회헌정대상 국회의원으로,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상이기에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러운 수상입니다.

저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택배기사들이 일하는 우체국 현장,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돌아봤고, 국민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도 현장이며, 대안도 현장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보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눈물,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의 목소리 등 우리 사회 율(乙)인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철저하게 정부, 권력기관을 견제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국정감사, 상임위, 특별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다짐입니다.

J.F. 케네디는 “국가는 시민의 하인이자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하인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국민이 주신 상을 수상한다고 생각하니 해야 할 책무가 더 늘어난 듯합니다. 더 마음이 바빠집니다. 오늘 법률소비자에서 주시는 상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여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인이 되도록 늘 귀와 마음을 열어두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평가를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이끄는 주관단체로서 평소 우리 국회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격려를 통해 국회의원의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활동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난 2년간 농수축산업은 민족 산업이자 생명산업임을 각인하고 농수축산인들의 현장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비판보다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마련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헌정대상을 주신 의미를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농축수산업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수미 의원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회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2013년은 ‘안녕하지 못한’ 분들과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나

SK하이닉스 하청노동자, 마필관리사 그리고 국회 청소노동자분들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 대기업, 정부기관의 '갑'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이를 고쳐 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을 크게 봐주셔서 '국회헌정대상'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비용이 아니고, 사람은 상품이 아니며, 사람은 인적자본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조국에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자마자 비용으로 취급되어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당해야 합니까? 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일하는 시민들이 게으르다느니, 노동생산성이 낮다느니, 부당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아서입니다. 헌법 위에 이윤과 시장과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불평등도, 어떤 차별도, 어떤 인권유린도, 어떤 불법도 겪지 않도록 일하는 시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입니다.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우리 정치의 약속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돈 먼저 기업공화국'에서 '사람 먼저 시민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마지막으로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19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

■ 이노근 의원

< 국회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

안녕하십니까! 서울 노원갑 출신 이노근 국회의원입니다. 제19대 하반기 국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국회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서 또 한 번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국회헌정대상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무인 입법과 상임위, 본회의 등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저에게는 의미가 큼니다.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해달라는 독려와 채찍으로 새겨들으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책무는 입법활동이라고 봅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써 국민 행복 실현을 보다 앞당길 수 있고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770건의 법안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또 6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총 8회의 공청회를 국회에서 직접 주최함으로써 국토교통, 산업,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관련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먹거리, 보금자리, 탈거리 등 민생과 안전에 관한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멀다하고 고장이나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지하철에 대해 차량 내구연한 관련 법적 근거를 다시 복원시키고 내진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빗더미에 파묻힌 공공기관들의 임원들이 역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공기업간의 고용세습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청년 취업자들을 좌절케 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더불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새 19대 후반기 국회로 들어선 것을 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지난 한 해의 노력이 국민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었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수상의 영예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임기도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조선의원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회의원 이 노 근

■ 이운룡 의원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운룡입니다.

제19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첫 의정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헌정대상은 국회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상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은 국정감사, 법안발의 등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보여주기식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항상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헌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옛말에 같은 배를 타고 천(川)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배를 타고 이해(利害)와 환란(患亂)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국가라는 하나의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기를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 배 안에서 다툼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제보다는 화합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보다 좋은 곳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국회의원으로서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화합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남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개인적 욕심을 좇기 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영 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국회의원입니다.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국회헌정대상'은 제헌국회 이후 민주헌정 63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하여 국회의원 활동을 정밀 분석하기에 수상의 기쁨이 어느 때 보다 큰 것 같습니다.

빡빡하게 진행되는 감사일정 등 호흡을 같이 하며, 제19대국회 2차년도 전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결같이 국회와 정부의 기능 회복과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대국회를 시작하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저 성실히, 충실히 본분을 지켜나가기 위해 묵묵히 이를 실천해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으로 격려해주시니 의지와 각오를 새로이 다지게 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많은 보람도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 제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있기에 무한한 책임감과 동시에 설렘도 느낍니다.

저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회에 첫걸음을 내딛었던 순간을 되돌아보며 초심을 다지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믿음직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무한한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동을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건승하십시오.

2014. 06. 23.
국회의원 이 재 영

■ 이진복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먼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권위 있고, 역사 깊은 법률소비자 연맹의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기쁨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회헌정대상이 마련된 18대부터 19대 1차, 2차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헌정대상을 수여해 주셔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해 주신 법률소비자 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과 2,700여명에 달하는 온·오프라인의 모니터 요원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8대, 19대를 거치면서 6번의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여러 번의 임시회와 예산과 결산,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까지.... 국민과 대화하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6년 연속 수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의원상, NGO 지역경제 공로상,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초청대상, 유권자 시민행동 국정감사 최우수상, 본회의 참여 우수의원 표창 및 대한민국 헌정 대상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감사한 평가와 인정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부산 동래구를 대표하는 대표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러한 평가와 '국회헌정대상'과 같은 큰 상을 주시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쁜 마음과 더불어 부끄러운 마음 또한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행하는 것이 상을 받아야 할 만큼 큰일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할 분들은 저와 같은 국회의원이지 아니라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묵묵히 지키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네 이웃들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은 결코 제가 한 의정활동들에 대한 자만이나 만족이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국민여러분들의 칭찬이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 그리고 아직 다 이루어 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의 남은 2년의 하반기가 이제 막 시작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간사라는 무거운 중책도 맡게 되었고, 우리 동래 주민들을 위해 아직 못 다한 공약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국회헌정대상' 수상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열심히, 더욱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해 뛰고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모니터요원 및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민생을 살피는 현실정치로 국민여러분들의 성원과 믿음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찬열 의원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제15대 국회이래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전문 23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수여하는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조사·분석·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상을 한다는 점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에, 이 상을 수상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 28일 재선거를 통해 제 18대 국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조금 늦은 출발이었기에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건설노동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법 개정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국토해양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이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급등하는 전월세시장 대책 과 쪽방촌 등 빈민주거 개선안을 촉구하며 주택시장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의 역할이라는 중책을 맡아, 여당 간사와 함께 양당의 의견을 조율하며 유난히 사건사고 많았던 19대 국회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100만 도시'와 같이 변화된 지방자치제도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올바른 경찰력의 방향 및 소방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19대 국회의 절반이 지나가고, 나머지 절반이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마음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따를 수(隨), 곳 처(處), 될 작(作), 주인 주(主), 수처작주.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늘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찬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한성 의원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민의 위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문경·예천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이한성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처럼 커다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밀분석·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는 지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부터 줄곧, 지역구인 문경과 예천의 현장의 목소리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길을 가고 오면서 유권자들의 말씀을 중앙 정치무대에 전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 돼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불철주야로 분주하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의정활동 중 국회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더욱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탐방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입법을 추진하는데 크나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처럼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승 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진구를 출신 이현승 국회의원입니다.

19대 국회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아울러 올바른 정치 구현에 앞장서온 법률전문 23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과,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한 모니터링, 조사, 분석이 정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는 입법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2년째를 접어들면서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로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특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의 제일 큰 숙원사업인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과 동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실시, 그리고 해양대 전문인력 증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를 비롯한 모든 의정활동에서 제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니다.

당연히 하여야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이처럼 영광된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7

국회의원 이현승

■ 전순옥 의원

국회헌정대상 소감

저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해 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헌정대상은 의원들의 입법활동 13개 분야를 분석하여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특히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 상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선의원인 제가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그간 저의 활동이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첫 국정감사를 치르고 저는, 제가 소속된 산업통상 자원위원회의 피감 기관 노동조합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피감 기관 노동조합을 방문한 첫 국회의원이라고들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공인 등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국회헌정대상**의 기쁨을 현장에서 저에게 답을 알려주신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NGO 모니터단과 법률소비자 연맹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가치 높은 상인만큼, 오늘 주신 상은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더 바른 입법 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 전정희 의원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 선정 소감>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매우 기쁩니다. 무엇보다 의정감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으로부터 받은 상이기에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와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살아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봄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는 사람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탐욕의 결과였기에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안전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규제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때만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안전 불감증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희생자 가족들에게 참회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빠른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어느새 19대 국회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지친 몸을 기댈 때마다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토닥여주는 익산시민들이 계셨기에 힘 든 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들께 이번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노력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수상 소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해철 의원

□ 국회헌정대상수상 소감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해철입니다. 제19대 국회2차년도 법률소비자연맹선정 국회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는「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1년 간 국회의원들의 법안투표율, 국정감사 성적,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 13개 항목을 조사해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기에 더욱 뜻 깊게 느껴집니다.

저는 19대 국회 상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국가최고 사정기관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기관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서고 민생도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입법활동에 있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 지역의 숙원이었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9대 국회 개원 후 총 24건의 대표발의와 277건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19대 국회가 정책국회,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더욱 내실 있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하반기에는 법사위 간사로서 상임위활동을 통해 사법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검찰, 감사원, 법원 등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기능회복과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과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의원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호입니다. 먼저 제 19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정대상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이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계량화해 발표한 것이기에 더욱 뜻 깊은 상이 아닐까 합니다. 19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끈게 달려온 것에 대한 따뜻한 격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힘차게 달리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알고 겸손한 자세 잃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민들께 알리는 일은 국회의원을 대표일꾼으로 세워주신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많은 모니터단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1년간의 당 원내수석부대표 임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소신을 가지고 임했지만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삼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진정 국민의 삶을 위하는 민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관료들의 마피아적인 행태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침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건져 올려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며, 국민들께서 대표로 세워주신 국회의원의 사명입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그 바람에 화답하겠습니다.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심사고거(深思高擧)의 자세로 행동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항상 지켜봐주시고 질책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19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정호준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구)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구 국회의원 정호준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19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수상의 영광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13개 분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평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의정치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사회는 큰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SNS 등 수많은 소통 경로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활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지만, 그 뜻을 하나로 모아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책임감은 무거운 이유입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만, 대화와 타협,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이 시대적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의정활동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민생과 정치발전에 쏟았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공정한 시장의 룰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원내대변인으로서 정부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우리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청년플랜2.0' 공동대표로서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주거, 문화, 일자리 등 청년의제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창조경제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고자 했습니다.

성실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은 국회의원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살피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부족한 의정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늘 믿어주시고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서울중구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희수 의원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정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국회 헌정대상'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대 국회 개원 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소중한 결실을 맺는 듯해 기쁘고 뿌듯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이 한편으론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회의장 주관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국회사무처 주관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입증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 대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힘써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량으로서 오늘의 수상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평가에 애쓰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7

국회의원 정 희 수 (새누리당, 경북 영천)

■ 한정애 의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한정애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제19대 국회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위원으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총재 김대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정밀분석하고 평가하여 선정하는 권위있고 공신력있는 상을 받게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유권자들이 전하는 목소리들을 충실히 반영해 적극적이고 책임감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가라는 시민들의 격려와 신뢰로 여기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비판이 높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부터 바뀌고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9대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의원으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 김대

인 총재님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활동평가회 및 시상식도 많은 이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함진규 의원

제19대 국회의 제1차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며, 헌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언론과 국회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점검하면서 모니터링 활동에 수고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여 왔으며, 주어진 권한에 부합하는 충실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종 위원회와 본회의에 빠짐없이 출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에 개최된 총45회의 본회의에 모두 출석하여 출석률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60건의 법안을 발의해, 월평균 2건을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하고 있습니다. 법안발의가 많은 의원이 반드시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 내지 기업활동과 밀접한 '민생법안'은 아직도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도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하여 자연이자를 지급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개정안' 등 10여건의 개정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앞으로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법률에 대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적극 발의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영철 의원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

제18대국회 헌정대상 수상 이후 19대 들어 다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이번 수상은 항상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홍천·횡성군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안행정위위원회 여당간사로서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도 민생을 우선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 야당과 협의하였고, 여타 상임위가 정치적 대립으로 개최되지 않을 때도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열어 민생과 우선된 현안부터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비 회기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높이 사 국회헌정대상

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헌정대상 선정은 초심 변치 않고 더욱 깊이 국민과 민생을 살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그간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저를 믿고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홍천·횡성 지역주민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 아침 홍천과 서울을 오가는 길 위에서 다짐하듯, 초심을 잃지 않고 서민과 농촌의 현실을 더욱 깊이 살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